

중국목민신학원



오동일 (중국목민신학원 원장, 중국 청화대 철학과 Post-doctor)

중국속담에 “30년은 강동쪽, 30년은 강서쪽”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사회는 30년에 한번씩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왔다. 1919년 손문의 신해혁명이 성공함으로 청나라 시대는 막을 내리고 공화정부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후 5.4운동을 중심으로 한 “신문화운동”이 펼쳐지면서 각종 이데올로기들의 세력화가 이루어지면서 군사적 대립과 충돌로 국내정세는 어지러운 시기를 맞이하였다. 1949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중국(신중국)은 많은 정치운동을 통하여 사회주의문화를 정착시키려 하였고 결국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으로 대단원을 마치게 되었다. 1979년부터 권력을 잡게된 덩소평은 “개혁개방”을 선포하고 빛나는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면서 WTO가입하는 등 금융위기를 맞아 무역 보호주의에 반대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150년 쇠국 정책과는 반대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북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인 발전은 이루어졌으나 그 이면에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다. 앞으로의 30년은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독교는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미 중국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역량으로 부상되고 있다.

신학원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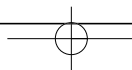
중국목민신학원은 이러한 국내외 상황 가운데 “나라이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태복음 6장 10절)”라는 성경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루터와 함께, 칼빈과 함께, 더욱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교훈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기독교 리더십을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세가지를 준비하고자 한다.

- 첫째, 목회 리더십: 중국교회의 집회중심의 교회에서 목회중심의 교회로 전환한다.
- 둘째, 사회책임: 기독교가 중국의 주변문화에서 주류문화로 발돋움 한다.
- 셋째, 세계선교: 피선교국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중국선교의 시대를 열어간다.

교육철학과 교육과정

이에 따라 우리의 교육철학을 ‘학문’과 ‘경건’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학문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로 살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며, 경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첫째, 시대적인 리더십을 길러내는 맞춤형교육을 지향하며 둘째, 자주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주고, 학





습습관을 형성시켜 주는 학습코칭을 하고 셋째,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중국내 신학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외학당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으로는 국제신학교육연맹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수여하는 석사(M.A)와 목회학석사(M. Div)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해외 신학박사소지자 30여명으로 구성된 국제 일류의 교수진(중국, 한국, 화교권)이 이러한 과정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기도제목

중국목민신학원은 중국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다음 학기 교육장소를 마련하고 영성과 학문이 결합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더 많은 동역자와 후원자(차량, 복사기 등)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중국목민신학원은 앞으로 학사, 석사, 박사과정 개설하여 국제신학교육연맹으로부터 직접 인가를 받고 안정적인

학교장소(부지)를 마련하여 5명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 전임교수, 10만권의 장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중국목민신학원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